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체크무늬의 의복이미지 연구

최수경
마산대학 뷰티케어학부 전임강사

A Study on the Clothing Image of Checked Pattern according to Coloration of Chromatic and Achromatic Color

Su-Koung Choi

Full-time Lecturer, Dept. of Beauty & Care, Masan College
(2010. 8. 1. 접수; 2010. 9. 7. 수정; 2010. 9. 10.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othing image according to gender, coloration of chromatic and achromatic color, and interval of checked pattern.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 The stimuli were 16 color pictures, in which the gender(male, female), interval(0.5cm, 1.5cm, 3.5cm, 5.5cm), and coloration(WR: white+red, WY: white+yellow, WB: white+Blue, WP: white+purple) were manipulated. The 7-point scale was used for evaluation of clothing image. Data were obtained from 192 male college students and 192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Seoul, Gwangju, Daegu, Jinju, and Changwon on March 2010. For data analysis, ANOVA and Duncan-test were used by using SPSS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Clothing image according to coloration of chromatic and achromatic color, and interval of checked pattern consisted of six dimensions of attractiveness, appeal, activity, freshness, modesty, and cuteness. Gender showed an independent effect on attractiveness, appeal, activity, freshness, and cuteness. Interval showed an independent effect on attractiveness. Coloration showed an independent effect on appeal, activity, freshness, modesty, and cuteness. Also, interaction effects of gender and coloration on freshness and cuteness were found.

Key Words: Coloration of chromatic and achromatic color(유채색과 무채색 배색) Interval of checked pattern(체크무늬의 간격), Gender(성별), Clothing image(의복이미지)

I. 서론

현대사회는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첨단 신소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시각이 개성화, 다양화되면서 패션 상품기획에 있어 소재의 무늬와 색이 디자인이나 구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직물과 의복디자인에 있어서 무늬는 선, 형, 크기, 방향성 및 사용된 색채에 따라 그 효과는 다양하고, 사용된 면적에 의해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무늬는 자체가 갖고 있는 선과 색채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의복의 시각적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류, 배열, 무늬끼리의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¹⁾ 이러한 무늬의 시각적 효과는 성별, 연령, 직업 등 지각자의 변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²³⁾

기하학적 요소로 구성되는 무늬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생겨난 것으로 곡선, 점, 원, 다각형으로 이루어진다. 기하학적 무늬로는 도트, 스트라이프, 체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규칙적이면서 단정한 느낌을 준다.⁴⁾ 또한 무늬의 굵기, 간격, 무늬와 바탕의 컬러 대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냄으로써 경쾌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하고, 캐주얼 이미지나 스포티브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더욱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표현하려면 컬러도 라이트 톤이나 비비드 톤으로 배색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⁵⁾

기하학적 무늬 중 체크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전형적인 격자 모양으로 아주 친숙하고 편안한 무늬이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변화되어 디자이너들에 의해 복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⁶⁾ 즉 체크는 편안함과 함께 다양하게 표현된 다채로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무한한 응용력을 가진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⁷⁾

체크무늬 의복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체크무늬의 디자인 분석,⁸⁹⁾¹⁰⁾¹¹⁾ 체크무늬 셔츠의 마킹에 관한 연구,¹²⁾ 넥타이에 적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¹³⁾ 여러 가지 문양 중 하나의 변인으로 간주되어 의복이미지를 평가한 연구¹⁴⁾¹⁵⁾¹⁶⁾¹⁷⁾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체크무늬가 의복의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체크무늬의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의복이미지를 평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소비자의 감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각자 변인에 의한 분석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늬에 의한 의복이미지 평가¹⁸⁾¹⁹⁾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지각자 변인을 성별로 하였으며,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연구변인으로 설정하기가 용이하게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의 간격을 일정하게 통제하였다. 통제된 간격은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배색 방법인 동시에 현대 패션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²⁰⁾으로 유채색과 무채색을 조합하여 배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차원을 알아보고,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에서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체크무늬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을 파악함으로써 현대패션에서 무수히 응용되어온 체크무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의 의복이미지

의복이미지는 의복을 통해 나타나는 분위기나 연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의복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디자인 요소들의 시각적 특징에 의해 형성된다. 즉 의복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단서로는 색채, 소재,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의복에 표현된 색은 의복 착용자에 대한 지각과정에서 생리·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색이 가진 이미지에 의해 의복 전체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각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²¹⁾

색은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눌 수 있다. 무채색은 흰색에서 회색의 여러 단계를 거쳐 검정색까지 명도의 차이만 있으며, 유채색은 무채색을 제외한 색상을 띠는 모든 색을 말한다.²²⁾

무채색과 유채색의 배합은 무채색을 주조로 하여 유채색을 약간 배합시키는 방법으로 검정색, 회색, 흰색 등을 넓은 면적으로 잡고 빨간색, 노란색 등의 유채색을 약간 배합하면 효과를 낼 수 있다.²³⁾

유채색과 무채색의 면적비 변화에 따른 스트라이프 넥타이의 이미지를 알아본 성남숙과 최수경²⁴⁾은 젊음활동성, 능력성, 매력성, 현시성, 온유성의 5가지 이미지 차원으로 도출하였고, 2가지 유채색과 1가지 무채색으로 조합된 12가지 배색 중 조합되는 무채색의 영향이 큰 배색과 유채색의 영향이 큰 배색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권혜숙²⁵⁾에 의하면 유채색과 무채색의 코디네이션은 패션에 많이 사용되는 색채 코디네이션 중의 하나이며, 무채색과 유채색이 배색된 경우 무채색과 대조된 유채색의 색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해 낸다고 하였다.

무채색 셔츠와 유채색 타이의 배색 이미지에 관한 임지영²⁶⁾의 연구를 보면 능력성, 활동성, 매력성, 현시성의 4가지 이미지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매력적인 이미지에는 흰색 또는 검정색 셔츠, 빨강이나 주황색 넥타이가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강경자와 정수진²⁷⁾은 치마와 저고리의 배색을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성하여 톤에 변화를 준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치마, 저고리의 조합되는 색상과 톤에 따라 이미지 차원별로 차이를 보였다.

은소영 등²⁸⁾의 연구에서는 의복 배색 연출별로 배색방법에 따른 시각적 감성 차이를 알아본 결과 대조배색에서 유채/무채 배색이 무난한 감성으로, 유사배색에서 유채/무채 배색이 매력있고 성숙하고 무난한 감성으로, 액센트 배색에서 유채/무채 배색이 성숙하고 무난한 감성으로 평가되었다.

여성정장의 배색 이미지에 대해 연구한 유금화²⁹⁾는 유채색과 흰색이나 회색, 검정색과 같은 무채색과의 배색이 매력, 젊음, 역량, 친근, 유연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볼 때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은 의복의 종류와 배색되는 면적비 등 사용

된 단서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다른 배색방법보다 이미지 요인이 많이 나타나 다양한 이미지 창출에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체크무늬의 의복이미지

체크패턴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바둑판 무늬의 천”을 뜻한다.

체크는 수평선과 수직선의 교차로 이루어진 격자무늬로 일반적으로 선염한 날실과 씨실로 직조하여 만들어 내지만 프린트 즉, 날염으로 나타낸 것도 있다.³⁰⁾

체크는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유행의 기복을 타지 않아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항상 있어 왔다. 그래서인지 체크는 그 자체로 새로운 주제가 되기보다는 주체 속에 조용히 묻혀 버리고 마는 참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아이템이다. 따라서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체크패턴을 찾을 수 있다.³¹⁾

최수경³²⁾의 연구를 보면 무채색으로 된 체크무늬 셔츠의 이미지는 매력성, 현시성, 젊음, 정숙성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고, 무채색으로 된 체크무늬의 배색과 간격은 이미지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무채색 체크무늬에서 배색은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 간격보다 배색을 더 중요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체크무늬 넥타이의 이미지를 분석한 최수경 등³³⁾은 매력성, 젊음, 현시성, 품위성, 온유성의 5가지 이미지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체크무늬의 폭, 색상조합, 색조조합의 변인 중 색상조합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최성이³⁴⁾는 체크무늬가 표현된 현대복식의 조형미를 레트로, 에스닉, 클래식, 로맨틱, 캐주얼, 아방가르드의 6가지로 분류하였고, 타탄체크가 현대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체크이며, 이를 레트로와 에스닉의 영향이라고 보고하였다.

정혜정³⁵⁾의 연구에서 체크는 거의 모든 세계의 디자이너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을 그들의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 있었으며, 패션이미지에 따라 클래식한 이미지, 캐주얼한 이미지, 장식적인 이미지, 민속적인 이미지 등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체크무늬는 예부터 사용된 무늬임

은 물론 지금까지도 대중적으로 널리 입혀지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무늬로 나타나 현대패션의 취향에도 알맞은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자극물을 선정하기 위해 2009년 8월-10월 사이 서울 D시장, 대구 S시장, 서울 S백화점, 진주 G백화점, 창원 L백화점에서 사진과 샘플 수집 및 자유기술식의 메모로 조사한 결과 먼저 체크무늬를 가진 의복의 종류는 셔츠, 스커트, 바지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캐주얼 셔츠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크무늬의 배열을 보면 셔츠와 바지는 주로 식서방향으로 나타났고, 스커트와 넥타이는 사선방향으로 바이어스 재단이 대부분이었다. 체크무늬의 종류는 여러 가지 배색과 간격이 조합된 버버리체크나 타탄체크 계열이 보편적으로 상품화되고 가장 널리 알려진 체크무늬이지만 조사시점에서 체크무늬의 종류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모두 동일한 간격을 지닌 블록형 체크무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체크무늬의 소재는 면직물, 모직물, T/C혼방의 순서로 많았으며, 조직은 평직이 가장 많고, 다음이 능직의 순이었다. 또한 체크무늬는 대부분 선염직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선염직물과 같은 효과를 가진 프린트직물도 있었다. 체크무늬의 배색은 재질을 다르게 한 단색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2색, 3색, 4색, 5색, 6색 이상 등으로 배색의 조합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체크무늬의 배색은 모든 색을 한번에 다룰 수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³⁶⁾³⁷⁾과 의복 및 원단 시장의 배색경향을 참고로 무채색을 하양으로 선정하여 유채색인 빨강, 노랑, 파랑, 보라와 조합이 되도록 배색하였다. 조합된 배색은 하양과 빨강을 WR, 하양과 노랑을 WY, 하양과 파랑을 WB, 하양과 보라를 WP로 표기하였다. 체크무늬의 배열은 대부분 셔츠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식서방향임을 고려하여 식서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체크무늬의 간격은 시장성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기가 용이하게 체크무늬를 동일한 간격으로 조작하여 수평선과 수직선의 직각교차가 일정하게 정비례하는 0.5cm, 1.5cm, 3.5cm, 5.5cm가 되도록 하였다.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

Sample	면셀기호
하양(White)	N9
빨강(Red)	5R 7.5/9
노랑(Yellow)	5Y 8/9
파랑(Blue)	5B 7.5/7
보라(Purple)	5P 7.5/7

체크무늬에 사용된 색은 한국표준색표집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으며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자극물은 칼라와 커프스가 있는 기본형의 긴소매로,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체크무늬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전체적으로 약간의 여유를 갖는 캐주얼 셔츠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셔츠는 전문가 집단(교수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준거집단과 제4차 한국표준채위예비조사(2003. 5)에 의해 가장 표준체형(키 162cm, 몸무게 52kg)에 가까운 마네킹에 착용시켰다. 이 때 자극물에 사용된 하의는 가능한 색의 영향을 배제하면서 착용 빈도가 높은 검정색 바지로 하였으며, 마네킹의 체형, 자세, 배경은 일정하게 통제되었다.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해 photoshopCS3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체크무늬는 시장조사를 근거로 하여 평직으로 된 면직물로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 평직의 조직 1칸을 1mm로 하여 무늬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모티브를 구성하였다. 선정된 체크무늬의 간격과 배색을 각각 다르게 하여 구성된 모티브를 define pattern으로 저장한 후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적당한 음영과 깨끗한 이미지로 조작한 의복 자극물 위에 레이아웃시켰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색표집에 준하여 색을 수정하여 최종 자극물을 HP Deskjet F735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독립변인인 성별 2가지(남자, 여자), 간격 4가지(0.5cm, 1.5cm, 3.5cm, 5.5cm), 배색 4가지(WR, WY, WB, WP)의 삼원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총 16개의 자극물(4×4)을 16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실험조합에 하나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 당 피험자는 실험조합별로 16명씩 피험자 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되었다.

3) 의복이미지 척도

의복이미지 척도는 의복의 무늬와 배색에 관한 선행연구들³⁸⁾³⁹⁾⁴⁰⁾⁴¹⁾⁴²⁾⁴³⁾에서 사용된 형용사 35쌍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가 집단(교수와 대학

원생)에 의해 체크무늬의 간격과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형용사 28쌍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형용사 5쌍이 탈락하였으며, 최종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치가 낮은 문항과 여러 요인에 걸쳐있는 문항을 제외한 형용사 22쌍이 도출되었다. 자료를 수량화하기 위해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우측 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1점을 주어 7단계로 평가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 광주, 대구, 진주, 창원 등지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각각 192명

<표 2>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 차원

요인명	형용사쌍	요인부하량	고유치	전체변량(%)	누적변량(%)	신뢰도계수
매력성	멋있는-멋없는	.893	5.489	22.869	22.869	.938
	감각있는-감각없는	.893				
	세련된-촌스러운	.877				
	보기좋은-보기싫은	.868				
	매력있는-매력없는	.866				
	현대적인-고전적인	.785				
	사교적인-비사교적인	.600				
현시성	화려한-수수한	.866	4.479	18.664	41.533	.907
	눈에띄는-무난한	.863				
	대담한-섬세한	.798				
	강렬한-은은한	.740				
	독특한-평범한	.716				
	발랄한-점잖은	.650				
활동성	개성있는-개성없는	.613	2.353	9.803	51.336	.775
	활동적인-비활동적인	.846				
상쾌성	캐주얼한-포멀한	.809	1.976	8.232	59.568	.774
	시원한-답답한	.811				
정숙성	신선한-오래된	.789	1.775	7.397	66.965	.795
	단정한-단정하지않은	.877				
귀염성	차분한-요란한	.822	1.712	7.133	74.098	.645
	귀여운-성숙한	.794				
	산뜻한-칙칙한	.723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0년 3월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으로 주성분분석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사용하였다. 도출된 의복이미지의 차원별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으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해 변량분석과 사후검정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 차원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 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2>와 같다. 그 결과 아이겐 값 1.0 이상으로 하여 22개의 형용사 쌍들이 6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938, .907, .775, .774, .795, .645로 내적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요인 1은 멋있는-멋없는, 감각있는-감각없는, 세련된-촌스러운, 보기좋은-보기싫은, 매력있는-매력없는, 현대적인-고전적인, 사교적인-비사교적인이 포함된 7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되었고, 임지영⁴⁴⁾의 매력성 차원과 유사하게 나타나 매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화려한-수수한, 눈에 띄는-무난한, 대담한-섬세한, 강렬한-은은한, 독특한-평범한, 발랄한-점잖은, 개성있는-개성없는으로 구성된 7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수경 등⁴⁵⁾의 현시성 차원과 유사하게 나타나 현시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활동적인-비활동적인, 캐주얼한-포멀한이 포함된 2개의 형용사쌍들로 묶이어 활동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성남숙과 최수경⁴⁶⁾의 활동성 차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4는 시원한-따뜻한, 신선한-오래된으로 2

개의 형용사쌍들이 구성되어 상쾌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단정한-단정하지않은, 차분한-요란한으로 2개의 형용사쌍들이 구성되어 정숙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최수경⁴⁷⁾의 정숙성 차원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요인 6은 귀여운-성숙한, 산뜻한-칙칙한으로 2개의 형용사쌍들이 도출되어 귀염성으로 명명하였다.

이상에서 6개의 의복이미지 차원은 매력성, 현시성, 활동성, 상쾌성, 정숙성, 귀염성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의복이미지 차원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차원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도출된 6개의 의복이미지 차원은 변수로 설정하여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평가하고, 의복이미지 차원별로 이들 단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2.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이들 단서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은 의복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의 영향력은 이미지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이미지 차원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매력성 차원을 <표 3>에서 살펴보면 성별과 간격은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상호작용효과에서는 독립변인 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성별을 평균에서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더 매력적인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주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간격을 평균에서 보면 0.5cm와 1.5cm는 3.5cm와 5.5cm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0.5cm는 가장 높게

<표 3>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

		매력성		현시성		활동성		상쾌성		정숙성		귀염성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주 효 과	성별	8.171	4.279*	16.037	9.207**	22.765	10.783**	11.609	7.601**	1.861	1.046	48.099	32.278***
	간격	17.475	3.050*	5.244	1.003	2.558	.404	1.916	.418	3.260	.611	2.200	.495
	배색	4.621	.807	41.362	7.915***	16.854	2.661*	105.368	22.996***	38.974	7.300***	77.876	17.529***
상 호 작 용 효 과	성별×간격	4.765	.832	4.875	.933	2.085	.329	1.503	.328	.547	.102	1.519	.342
	성별×배색	.991	.173	10.426	1.995	5.455	.861	23.351	5.096**	13.468	2.523	16.651	3.748*
	간격×배색	13.332	.776	12.091	.771	18.568	.977	8.445	.614	5.507	.344	7.497	.562
		평균(M)		평균(M)		평균(M)		평균(M)		평균(M)		평균(M)	
성 별	남자	3.863		3.775		4.219		3.740		4.484		3.720	
	여자	3.543		4.223		4.753		4.122		4.331		2.297	
간 격	0.5cm	3.957b		3.814		4.444		4.019		4.575		4.175	
	1.5cm	3.880b		4.039		4.619		3.950		4.363		4.019	
	3.5cm	3.366a		4.170		4.506		3.806		4.306		4.206	
	5.5cm	3.608ab		3.973		4.375		3.949		4.387		4.034	
배 색	WR	3.682		4.459b		4.825b		3.594a		3.863a		4.269b	
	WY	3.516		4.034b		4.525ab		3.631a		4.363b		4.844c	
	WB	3.829		3.450a		4.406ab		4.925b		4.788b		3.731a	
	WP	3.785		4.053b		4.187a		3.574a		4.618b		3.590a	

*p<.05 **p<.01 ***p<.001 a, b, c: Duncan-test

평가되어 매력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려면 체크 무늬의 간격이 넓은 것보다 좁은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현시성 차원을 <표 3>에서 살펴보면 성별과 배색은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었고, 이 중 배색은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독립변인 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성별을 평균에서 보면 남자는 현시적이지 않는 이미지로, 여자는 현시적인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주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배색을 평균에서 보면 WR은 가장 눈에 띄고 대담하고 강렬한 것으로, WB는 가장 무난하고 은은하고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양과 조합된 빨강이 가장 현시적인 이미지로, 하양과 조합된 파랑이 가장 현시적이지 않는 이미지로 지각된 결과를 볼 때 빨강은 어느 색보다도 진출되어 보이는 반면 파랑색은 후퇴되어 보인다는 선행연구⁴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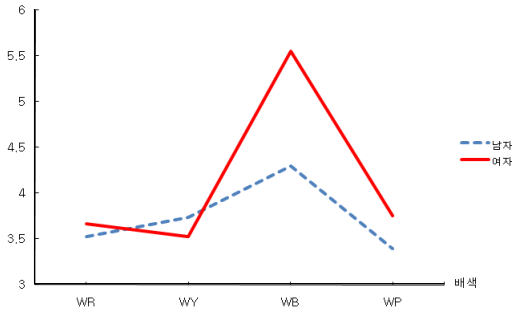
지지해 준다.

활동성 차원을 <표 3>에서 살펴보면 성별과 배색은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었고, 상호작용효과에서는 독립변인 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성별을 평균에서 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더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주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배색을 평균에서 보면 체크무늬의 배색은 WR>WY>WB>WP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하양과 빨강이 배색된 WR일 때 가장 활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상쾌성 차원을 <표 3>에서 살펴보면 성별과 배색은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이 중 배색은 독립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변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서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1> 상쾌성 차원에 대한 성별과 배색의 상호작용효과

주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성별을 평균에서 보면 남자는 답답하고 오래된 것으로 지각한 반면 여자는 시원하고 신선한 것으로 지각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주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배색을 평균에서 보면 WB가 WR, WY, WP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상쾌한 이미지를 표현하려면 하양과 파랑이 조합된 체크무늬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본다.

상쾌성 차원에 대한 성별과 배색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에서 보면 성별이 남자인 경우 체크무늬의 배색은 WB>WY>WR>WP의 순으로, 성별이 여자인 경우 WB>WP>WR>WY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남녀 모두 WB일 때 가장 상쾌한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WB, WR, WP일 때는 여자가, WY일 때는 남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WR과 WY는 성별 간에 지각 차이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체크무늬의 배색이 WB일 때는 남녀 간에 지각 차이를 크게 나타내어 동일한 배색이라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다. 즉 상쾌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체크무늬의 배색과 함께 성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자는 남자보다 체크무늬의 배색에 따라 큰 지각 차이를 보여 지각 반응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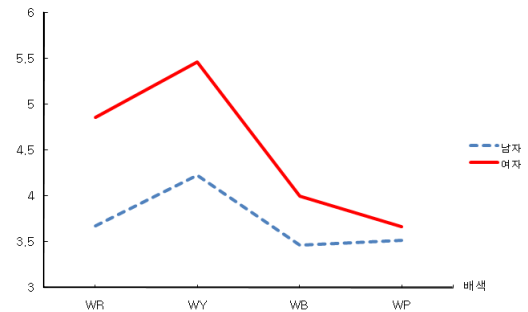
정숙성 차원을 <표 3>에서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배색만이 주효과에서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인 간에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배색을 평균에서 보면 WB, WY, WP는 높게 지각된 반면 WR은 낮게 지각되었다. 따라서 단정하고 차

분한 이미지를 위한 연출에서는 체크무늬가 하양과 빨강으로 조합된 WR을 피해야 되는 아이템으로 볼 수 있다.

귀염성 차원을 <표 3>에서 살펴보면 성별과 배색은 주효과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효과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성별을 평균에서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림 2> 귀염성 차원에 대한 성별과 배색의 상호작용효과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배색을 평균에서 보면 체크무늬의 배색은 WY>WR>WB>WP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하양과 노랑이 조합된 WY일 때 가장 귀엽고 산뜻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것은 노랑의 이미지가 젊음, 쾌활, 원기 등의 의미를 연상시킨다는 선행연구⁴⁹⁾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상쾌성 차원에 대한 성별과 배색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2>에서 보면 남자인 경우 체크무늬의 배색은 WY>WR>WP>WB의 순으로, 여자인 경우 WY>WR>WB>WP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WY일 때 가장 귀엽고 산뜻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보다 높게 평가함은 물론 지각 차이도 크게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을 지각하는 감성 이미지 차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 박영희⁵⁰⁾의 연구결과를 한 번 더 입증해 준다. 전체적으로 체크무늬의 배색에 따라 성별 간에는 지각 차이를 보여 귀여운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별과 배색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 차원을 알아보고,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에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 차원을 요인 분석한 결과 매력성, 현시성, 활동성, 상쾌성, 정숙성, 귀염성의 6가지 의복이미지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에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 결과 단서들의 영향이 의복이미지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력성 차원에서 주효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성별과 간격을 보면 성별이 남자이고 체크무늬의 간격이 0.5cm일 때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현시성과 활동성 차원에서 주효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성별과 배색을 보면 성별이 여자이고 체크무늬의 배색이 WR일 때 가장 현시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상쾌성 차원에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성별과 배색을 보면 성별이 여자이고 체크무늬의 배색이 WB일 때 가장 높게 지각되었으며, 이들 단서는 서로 상호작용하여서도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어 성별에 관계없이 WB에서 가장 상쾌한 이미지로, 남자는 WP에서, 여자는 WY에서 가장 상쾌하지 않은 이미지로 나타났다.

정숙성 차원에서는 배색만이 주효과로 두드러진 영향을 나타내어 WR을 제외한 모든 체크무늬의 배색이 정숙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귀염성 차원에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성별과 배색을 보면 성별이 남자이고 체크무늬의 배색이 WY일 때 가장 귀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단서들 간에 상호작용효과는 모든 체크무늬의 배색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 간에 지각 차이를 보여 남자와 여자 모두 WY에서 가장 귀

여운 이미지로, 남자는 WB에서, 여자는 WP에서 가장 귀엽지 않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⁵¹⁾와 비교해 보면 무채색으로 된 체크무늬 의복은 매력성, 현시성, 젊음, 정숙성의 4가지 이미지 차원으로 구성되는 데 비해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조합된 체크무늬 의복은 매력성, 현시성, 활동성, 상쾌성, 정숙성, 귀염성의 6가지 이미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무채색만으로 된 배색보다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조합된 배색이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에서 이들 단서는 의복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성별과 배색은 대부분의 요인에서 주효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조합된 체크무늬 의복은 성별과 배색에 초점을 둔다면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체크무늬 의복을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조사대상자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평가되었으므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색상과 배색 방법, 무늬나 재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오선숙, 김인경, 정희순 (2002). *Fashion Design & Production - 패션 상품기획 실무-*. 서울: 경춘사, p.125.
- 2) 남기선, 한명숙 (2004). 성격유형에 따른 복식문양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1)*, pp.59-72.
- 3) 박영희 (2004). 남성복에 나타난 문양의 감성이미지와 선호도. *복식 54(4)*, pp.113-127.
- 4) 김은애, 김혜경, 나영주, 신윤숙, 오경화, 유혜경, 전양진, 홍경희 (2000). *패션소재기획과 정보*. 서울: 교문사, pp.137-139.

- 5) 김월순, 김은희, 이언영 (2004). *토탈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예림, p.116.
- 6) 김유현 (2003). 체크직물의 색채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
- 7) 정혜정 (200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체크 패턴 연구. *복식* 52(2), p.43.
- 8) 정혜정 (2002). Op. cit., pp.31-44.
- 9) 정경희, 김은실, 배수정 (2009). ‘버버리 프로섬’의 사례를 통해 본 전통 브랜드의 현대화 연구-오리지널 버버리와 버버리 프로섬의 디자인 비교를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3(2), pp.87-99.
- 10) 김유현 (2003). 체크직물의 색채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최성이 (2003). 현대패션에 표현된 격자무늬의 조형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홍은희, 서미아 (2009). 체크무늬 Shirt의 Marking 효율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7(5), pp.746-757.
- 13) 최수경, 정수진, 성남숙 (2009). 체크패턴의 폭과 색채조합에 따른 넥타이의 감성이미지 연구. *감성과학* 12(4), pp.545-556.
- 14) 이소라, 김재숙 (2007). 의복의 문양에 따른 의복 및 직물 선호-포카다트, 스트라이프, 체크 문양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5(2), pp. 193-202.
- 15) 박영희 (2004). Op. cit., pp.113-127.
- 16) 임지영, 강경자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20(5), pp.753-768.
- 17) 최은영 (1995). 무늬의 크기, 배열, 명도 대비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격자무늬와 물방울무늬를 중심으로-. *복식* 24, pp.193-203.
- 18) 박영희 (2004). Op. cit., pp.113-127.
- 19) 성남숙 (2008). 스트라이프 문양의 3색 배색과 그 면적비 변화가 넥타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권혜숙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무채색과 유채색 코디네이션 특성-파리, 밀란, 뉴욕, 런던 컬렉션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2(4), p.74.
- 21) 박은주 (1999).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pp.278-279.
- 22) 이경희, 김희정, 김유진, 김윤경, 노경혜, 오해순, 은소영, 주소현 (2002). *패션디자인발상*. 서울: 교문사, p.70.
- 23) 박필재, 백숙자 (2001). *컬러 코디네이트를 위한 색채학 입문*. 서울: 형설출판사, p.39.
- 24) 성남숙, 최수경 (2009). 무채색과 유채색의 면적비 변화에 따른 스트라이프 패턴의 넥타이 이미지 연구. *복식* 59(4), pp.67-81.
- 25) 권혜숙 (2008). Op. cit., pp.73-87.
- 26) 임지영 (2007). 무채색 셔츠와 유채색 타이의 배색이 남성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5), pp.1007- 1019.
- 27) 강경자, 정수진 (2007). 무채색과 유채색 배색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평가-빨강, 노랑, 초록 저고리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3), pp.19-34.
- 28)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2002).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5), pp.715-726.
- 29) 유금화 (2001). 여성정장의 2색 배색에 의한 이미지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0) 김유현 (2003). Op. cit., p.4.
- 31) 정혜정 (2002). Op. cit., p.32.
- 32) 최수경 (2010). 무채색 체크무늬 셔츠의 시각적 이미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pp.399-407.
- 33) 최수경, 정수진, 성남숙 (2009). op. cit., pp.545-556.
- 34) 최성이 (2003). Op. cit., pp.95-104.
- 35) 정혜정 (2002). Op. cit., pp.31-44.
- 36) 최수경, 정수진, 성남숙 (2009). op. cit., pp.545-556.
- 37) 임지영 (2007). Op. cit., pp.1007-1019.
- 38) 최수경, 정수진, 성남숙 (2009). Op. cit., p.550.
- 39) 성남숙, 최수경 (2009). Op. cit., p.73.

- 40) 임지영 (2007). Op. cit., p.1011.
- 41) 이소라, 김재숙 (2007). Op. cit., p.197.
- 42) 박영희 (2004). Op. cit., p.119.
- 43) 최은영 (1995). Op. cit., p.196.
- 44) 임지영 (2007). Op. cit., p.1011.
- 45) 최수경, 정수진, 성남숙 (2009). Op. cit., p.550.
- 46) 성남숙, 최수경 (2009). Op. cit., p.73.
- 47) 최수경 (2010). Op. cit., p.404.
- 48) (사) 한국색채학회 (2002). *컬러리스트 이론*
편 서울: 도서출판 국제, p.48.
- 49) 이경희, 김희정, 김유진, 김윤경, 노경혜, 오
해순, 은소영, 주소현 (2002). Op. cit., p.73.
- 50) 박영희 (2004). Op. cit., pp.113-127.
- 51) 최수경 (2010). Op. cit., p.6.